

“아시아 넘어 세계로…소통하는 전남체육 이끌터”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60)이 지난달 16일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민선 2기 전남도체육회를 이끌어갈 송 회장은 화합과 소통을 내세워 전남체육의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과 체육인이 주인이 되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선 1기 체육회장 체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송 회장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민선 시대 출범 직후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돼 지방체육회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중단되는 등 발전은 커녕 침체되는 상황을 맞았고 전임 회장의 중도 사퇴 등으로 수장 공백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전남체육의 내실을 단단하게 갖춰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하는 전남체육’을 향해 힘껏 뛰겠다는 각오다.

-공식 임기 시작 후 한 달여가 되어간다. 전남도체육회장으로서 활동한 소감을 밝혀달라.

▲체육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또 감사드린다. 막상 체육회에 들어와서 보니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체육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직접 체육회 안에서 보니 다른 점도 있었다. 그동안 체육인들이 불만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직원들만의 책임은 아니었다. 관리자들의 책임이었다. 관리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체육인도 체육회 직원들

-선거과정, 그리고 당선 후 체육인들이 당부한 내용이 궁금하다. 선거 과정에서 체육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당선 이후 회장에게 당부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다면.

▲선거 과정과 당선 후까지 수많은 체육을 만나 이야기하며 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 바라는 점, 애로점 등을 많이 들었다. 주로 전남체육의 위상 강화, 종목단체의 균등한 지원, 체육인들과의 소통강화, 체육인 복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전과 전략 방향, 중점 과제, 공약 등을 설정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킬 예정이다.

소통 중요성 통감…책임·권한 분명하게

레슬링·수구·육상·복싱 창단 지원 성과

조직개편 오는 10월 전국체전 이후 추진

도·대한체육회 등 적극 협의 예산 확보

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사회가 출범했는데 내규를 만들었다. 이사들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2회 이상 연속 참석하지 않으면 제명하는 내용이다. 이사들도 이틀만 걸쳐놓는 것이 아닌 전남체육회 이사로서 체육발전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조만간 워크숍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전남 체육인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소통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생각이다.

-전남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전남체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체육인들이 전남체육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저의 소신과 신뢰를 믿어주시는 당선된 원동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정말 열심히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만났다. 많은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전남체육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 많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원활한 업무인계와 체육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고자 인수위원회를 구성했고 공약집을 준비 중이다. 공약집을 체육인들에게 배포해 내세운 공약을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은 조안을 얻겠다.

더불어 체육회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쓰고 있다. 남녀 휴게실, 체력단련실, 요가실 등을 만들 계획이다. 금연하는 직원들은 포상금도 계획 중이다. 직원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다. 일을 하려면 그 전에 복지도 신경써야 한다. 책임에 따른 권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할 생각이다.

-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은.

▲전남체육회는 외향적으로는 독립적 법인단체이지만, 체육회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방체육회의 중립성은 확



보가 됐으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재정이 열악한 상태다. 이에 자주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려면 먼저,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해서 안정적으로 체육예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조례가 개정됐으나 명확히 몇 프로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대한체육회, 17개 시·도체육회장들과 적극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회가 자주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기때문에 나주국제사격장 등 체육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각각 활성화를 약속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K-팝 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최고의 가수들이 있었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세계적인 리그가 된 건 최고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대표급 우수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확보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키워 전남체육의 위상과 영광을 다시 찾을 계획이다.

생활체육에서도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좋아진 체육시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 대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특화프로그램 30개와 전문선수반 15개 등 총 45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13억 1,25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선수 양성 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엘리트 체육 관련 팀 창단 계획도 궁금하다.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2023년도 하계종목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에 선정됐다. 레

슬링·수구·육상·복싱 4종목을 신청했는데 4종목 모두 선정됐다. 체육회 레슬링과 수구팀, 진도군청 육상팀, 목포시청 복싱팀이 선정돼 총 11억 8,650만원의 지원금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특히 레슬링은 지난해 함평군청이 갑작스럽게 팀 해체를 결정하면서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전남체육회 레슬링팀 2억 7,000만원, 수구팀은 3억 9,000만원, 진도군청 육상팀은 2억 7,000만원, 목포시청 복싱팀은 2억 5,500만원이다. 이번 창단지원사업 선정은 선수들의 안정적인 선수 생활과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 체육 정책의 일관된 연계육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조직개편은 일단 조직을 직접 경험한 후에 하겠다고 밝혔는데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로서는 조직을 개편할 계획은 없다. 직원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할 생각이며, 전국체육대회 이후로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다. 대신 직원들끼리 소통해서 업무는 나누고 불만사항들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목포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 전국체전 개최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한다면.

▲목포종합경기장이 오는 6월 완공된다. 전국 최초로 육상트랙을 9레인으로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 약 82%로 정도로 순조롭게 건립 중이다. 또한, 전남 각 지역에 있는 경기장과 시설들을 개·보수 중에 있다.

현재 경기장 공·승인 업무와 종목별 경기 운영에 필요한 경기용 기구를 구입하고, 심판 및 운영 요원 등 운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민과 체육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남도체육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나로 소통하는 전남체육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 도민에게는 건강한 삶과 행복을, 체육인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전남체육회를 만들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하는 전남체육’을 향해 힘껏 뛰겠다. 화합과 소통,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과 체육인이 주인이 되는 체육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사진=김태규·글=최진화 기자

약력

▲목포 출생 ▲전 대한체육회 제40대 남북체육 교류위원회 위원 ▲전 제22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조사연구원 ▲전 전남육상연맹 제1대 통합회장 ▲전 민선 1기 목포시체육회장 ▲전남도 해양레저 자원위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직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